

“채권혼합부터 지분 보유주까지”... ‘삼전·닉스’ ETF 다변화

개인 매수 95% 반도체 대장주 집중
선두 상품 반년 새 순자산 4조 돌파
퇴직연금 안전자산 분류 활용 확대
레버리지·AI반도체에 자금 몰려
배당·자사주 소각 겨냥 상품 선택

올해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자금 중 약 95%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린 가운데, ‘반도체 투톱’을 타깃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군이 채권 혼합과 주주환원 수혜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두 대장주와 채권을 결합한 ‘채권혼합형ETF’ 시장이 6파전으로 확대되면서, 대장주 파생 상품으로의 자금 흡수도 한층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 ‘채권+주주환원’으로 투자 다변화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채권혼합 상품 중 가장 먼저 출시된 KB자산운용의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은 상장 당시 순자산 321억원에서 약 6개월 만에 4조 685억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했다. 이날 기준 기존 6개 관련 상품 전체 순자산(6조 3507억원)의 64%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유가증권시장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채혼합50’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타깃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군이 채권 혼합, 주주환원 수혜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혼합50’ 등이 신규 상장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핵심 축으로 담은 채권혼합형 ETF는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늘어났다.

미래에셋운용은 두 대장주를 각 25%씩 담은 한편, 나머지 50%를 만기 1년 이하 미국 국채로 채워 주식·채권 분산과 더불어 원화·달러 통화 자산 분산 효과를 노렸다. 한투운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 20%씩 담고, AI 반도체 연관성이 높은 삼성전기를 10% 추가 편입해 주식 비중에 차별화를 뒀다.

자산운용사들이 삼전·닉스 채권혼합 ETF를 잇따라 출시하는 이유는 퇴직연금(DC·IRP) 규정과 맞물려 있다. 현행법상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내에서는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된다. 하지만 채권 비중이 50% 이상인 채권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자산 한도 70%를 주식형 ETF로 채우고, 남은 안전자산 30%를 주식 비중이 절반인 채권혼합 ETF로 채우면 전체 계좌의 실질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 8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 개미들 ETF 시장에서도 ‘삼전·닉스’ 싹쓸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

수한 종목은 삼성전자(51조5986억원)와 SK하이닉스(48조3143억원)으로,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순매수 금액의 약 95%가 몰려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투톱 쏠림 현상은 ETF 시장에서도 두드러진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6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3조3267억원)였으며,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조8506억원)와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조5153억원) 등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지난 3월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 수준으로 편입하며, SK스퀘어를 포함한 국내 AI반도체 관련 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 수혜를 누리는 구성이 주목되면서 높은 선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에는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6조4624억원이 불어났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특별배당과 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매입·소각 등 두 기

업의 주주환원 모멘텀을 활용하는 상품도 나타났다. 지난 1일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IWOOM 삼성SK그룹TOP4’ ETF를 신규 상장했다. 해당 상품은 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등 4개 종목을 중심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SK 등 지분 보유 기업까지 함께 편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에 따른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직접 투자를 넘어 지분 수혜주, 채권 혼합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타깃으로 한 상품 라인업이 한층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ETF라는 ‘바스켓’을 활용하는 것이 변동성 위험을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자 독식 성격이 짙은 AI 테마 트렌드에서 대장주가 될 종목을 직접 발굴하는 리스크를 줄이려면 바스켓으로 묶어 분산 투자하는 ETF의 장점이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며 “ETF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바스켓 분산으로 방어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패권 기업이 창출하는 막대한 이익의 혜택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AI 인프라 기대에 통신장비주 ‘들썉’

주요 종목 올해 투자릿수 상승세
통신장비 절반 이상 흑자전환
美 대중 광통신 규제 수혜 기대

인공지능(AI) 시장에 기댄 통신장비주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통신장비주인 오이솔루션은 39.0% 상승했다. RFHIC(37.8%)·RF머트리얼즈(33.3%)·LIG아큐버(20.3%)·솔리드(9.0%)·유비쿼스(3.4%) 등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등락률은 -14.0%였다.

실적이 뒷받침한 덕분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통신장비 9개사 중 RFHIC(112억원), 유비쿼스(90억원), LIG아큐버(56억원), RF머트리얼즈(53억원), 솔리드(35억원) 등 절반이 넘는

업체가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오이솔루션(-9억원), 케이엠더블유(-63억원), HFR(-77억원) 등은 아직 적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3G·LTE·5G를 거치며 무선장비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도업체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쏠림 현상’이 반복돼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AI 기지국(AI-RAN) 시장으로 사업을 넓히는 데 대해 “국내 중소 아웃소싱 업체들은 무선송수신장치(RU) 부품·프론트홀·인빌딩 장비 쪽에 주로 포진해 있다”며 “시장 확장의 기회를 누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주가 전망도 밝은 편이다. AI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는 소식에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은 더 커진 모양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 움직임도 국내 광통신주에는 우호적이다. 지난달 초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가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국내 광통신 밸류체인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시 “규제 논의가 미국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공급처 다변화를 촉진할 경우 비중국 광통신 업체에 중장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장(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실적과 주가 모두 갈 길이 멀다.

광통신용 반도체 기반을 만드는 미국 AXT는 일회성 비용을 뺀 실질 마진(비GAAP 매출총이익률)이 2분기 45.0%에 달했다. 1분기는 29.9%였다. 레이저·광부품 업체인 루멘텀 역시 마진이 50%를 넘어섰다.

/김아영 기자 aykim@

신한투자증권, 숏폼 공모전 수상작 5편 선정

총 151편 접수 대상 상금 1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숏폼 영상 공모전 ‘신한프리미어 필름 페스타(Premier Film Festa)’를 성황리에 마치고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Premier’가 지향하는 ‘고객중심 자산관리’ 가치를 ‘신한Premier와 함께하는 나’라는 테마로 일상 속에서 풀어내고자 기획됐으며, 약 2달 동안 총 15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참가자들은 AI 영상도 활용하는 등 장비나 경험에 상관없이 60초 이내 숏폼 영상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했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의 예심과 임직원 본심을 거쳤다. 예심에서는 주제 적합성과 완성도, 대중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상위 10편을 추렸고, CGV여의도에

서 열린 본심에서 임직원 45명이 투표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등 최종 5편을 선정했다.

신한Premier 대상에는 정지현 감독의 ‘인생에도 줌아웃이 필요하다’가 선정됐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들과 신한Premier와의 연결을 담은 스토리, 위트있고 감각적인 표현이 돋보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조형진 감독의 ‘하니오텔’이 차지했으며, 우수상 3편은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 라운드’(지병주), ‘화성에서 온 신한, 금성에서 온 당신’(김동하·김창경), ‘나의 프리미어 두개비’(김나영·강지혜)가 수상했다. 신한Premier 대상엔 10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2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목표전환형 펀드 불완전판매 점검

평균목표 달성 753일서 57일로 단축
투자자 71.8% 선취수수료형 선택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의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 사전에 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은 2023년 2000억원에서 2024년 1조4000억원, 지난해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2000억원이 설정됐다.

문제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이 크게 짧아졌다는 점이다. 평균 목표 달성 기간은 2018년 753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자의 71.8%는 가입할 때 판매수수료를 먼저 내는 A클래스를 선택했다.

A클래스는 판매보수가 낮아 통상 2년 이상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하지만, 목표수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익률을 단기간에 달성해 환매하면 선취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실적을 위해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환매와 신규 상품 재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퇴직연금서 개인투자용 국채 거래

10·20년물 첫 청약 9일부터 15일까지

KB증권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개인의 안정적인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저축성 국채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고

객의 노후자산 운용 선택지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은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4일부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로 구성되며 매월 20일 발행을 원칙으로, 발행일 전 7영업일 동안 청약을 진행한다. 발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발행된다. 첫 청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18일 발행일 예정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적용된다.

/신하은 기자